

가정행사의 사회화 실태와 모녀 세대간 시행의식

- 진주시 여대생 가정을 중심으로 -

The Socialization and the Comparison of Generation Attitudes about the Family Rituals

코넬대학교 가정대학

객원 연구원 장상옥*

College of Human Ecology, Cornell University

Visiting Scholar: Jang, Sang-O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the socialization of family rituals and compare the attitudes between the younger and the older generation.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in 2002 from households living in Jinju.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ge students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ocialization of the following family rituals is increasing: the first birthday party, banquets for parents' 60th birthday, wedding anniversaries, employment ceremony, and commencement ceremon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 between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regarding performance of the family rituals.

▲주요어(Key Words) : 가정행사(family rituals), 사회화 (socialization), 가정행사에 대한 세대간 의식(generation attitudes about the family rituals), 대학생가정(households with university students)

1. 서 론

가정행사는 사회질서 유지와 가족의 결속에 기여하므로 가족의 유대를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정행사를 지원하는 가사노동이 부담되거나 과중하게 느껴지면 행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생겨 기피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적인 예는 매년 명절마다 집중적인 가사노동이 부담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명절증후군'이다. 일반적으로 행사의 준비자인 주부들은 설이나 추석에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며 행사 자체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허성미·한재숙, 1993; 조선일보, 2001. 9. 26). 그런데 이러한 부담은 행사 자체를 기피하게 할 수 있으므로 행사 시 이의 부담을 줄여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하다. 이의 해결책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종종 가족원간의 가사분담과 사회화가 제시되고 있다. 이 중 가족원의 가사분담은 가사노동의 관점에서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나 외부시설이용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그런데 가정행사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가정행사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근래 자녀의 돌잔치부터 부모님의 환갑잔치까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증가하는(국민일보, 2000. 2. 15; 조선일보 2000. 2. 20) 행사의 사회화 현상이 현저하다. 이러한 가정행사의 사회화는 가정의 기능 축소 내지 소멸 등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반면(이길표, 1989) 가족단란과 가사노동 감소 등에 기여하기도 한다(이기춘·이은영·이기영·황인경·김민자·김영옥, 1989). 따라서 가정행사의 사회화 실태 파악은 바람직한 가정행사의 방향성 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저자: 장상옥 (E-mail: jso1019@yahoo.co.kr)

한편, 가정행사는 일반적으로 가족원 중 여성에 의해 지원되므로 가정행사에 대한 여성의 의식이 의례 존속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런데 서구 문화의 유입 등 가치관 변화로 가정행사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어 세대간 의식 차이도 커지게 되었다(박혜인, 신기영, 2001). 한 가정 내에서의 행사 의식의 세대 차이는 가족간의 갈등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행사의 존속에도 영향을 끼쳐 가정의 행사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세대간의 의식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 생활문화의 계승자 역할을 담당하는 주부와 그 대학생 딸 세대를 대상으로 가정행사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양 세대간 행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가정행사 사회화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한 부분으로 중도시 여대생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행사가 어느 정도 사회화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살펴보고, 어떤 변인에 따라 사회화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또 주부와 여대생 딸의 의례 시행의식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가정행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여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결과는 가정측면에서는 가정행사의 올바른 방향의 모색과 세대간 가정행사 관점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측면에서는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행사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겠고, 가정교육측면에서는 가정행사의 교육 방향 설정 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진주시 여대생가정의 가정행사 사회화 실태를 파악한다.
- 2) 진주시 여대생가정의 가정행사 사회화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3) 진주시 여대생가정의 가정행사의 시행에 대한 어머니와 딸의 행사 시행의식 차이를 살펴본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가정행사의 개념

가정행사는 가족성원의 탄생을 비롯한 성장에 따라서 행하는 인사(人事)에 대한 의례와 연중의례로서 각 가정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이며 여기에 탄생에 관련된 백일, 첫돌, 생일, 혼인, 환갑, 고회 등과 연중행사로 설날, 대보름, 단오, 유두, 추석 등이 있고 종교적인 행사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초파일이 포함된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2). 이의 사전적 의미에서 가정행사는 가정의례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례를 포함한 행사를 편의상 가정행사로 정의하였다.

가정행사의 연구범위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가족/친족의례 연구(박혜인·조은숙, 2001)에서는 관혼상제, 출산의례(백일, 돌), 축하의례(회갑, 고회 잔치), 신앙의례, 세시의례 등 넓은 범위를 다루기도 하고, 혼례, 제례, 상례(이길표, 1989) 또는 혼례와 제례(이정우·김명나, 1990) 등 범위를 좁혀 파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

사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어 오늘날 사회변화로 새로이 등장하여 시행하는 행사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김계동·이영호(1997)는 사회 및 가치관 변화로 행사가 변화되어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조상을 위한 행사보다 현재의 가족을 위한 의례가 강화되어 생일의례나 기념일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행사는 한 사회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새로이 탄생하는 유기체와 같으므로 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변화되는 가정행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행사에 더하여 사회변화로 새로이 발생된 행사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조사목적에 맞게 가정행사를 전통행사, 탄생행사, 현대가정행사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행사는 해마다 관례로 행해지는 전통적 행사이므로 세시풍속 중 많이 이루어지는 설(신정, 구정), 대보름, 추석, 석가탄신일과 제사를 선정하였다. 신정은 세시풍속이 아니지만 구정과 함께 '설'로 받아들여 지내고 있으므로 편의상 전통행사에 포함시켰다. 이 중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관혼상제는 제사만 포함시켰는데 관례는 용어조차 사라졌고(박혜인·신기영, 2001), 혼례와 상례는 외부기관의 대행으로 거의 사회화된 행사이므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2) 본 연구의 사회화 파악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제사만 선택하였다. 탄생행사는 전통적으로 해오고 지금도 지속되므로 탄생에 관련된 백일, 돌, 환갑·고회, 생일을 선정하였다. 현대가정행사는 근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강화의례인 입학, 졸업, 집들이, 결혼기념일 등이 많이 이루어져(김계동·이영호, 1997) 이에 취직을 포함시켜 입학, 졸업, 취직, 집들이, 결혼기념일을 택하였다. 또한 이 범주에 크리스마스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생활의 서구화로 행사의 서구화가 증가되는(박혜인·신기영, 2001)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의 생활문화에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선택하였는데 김계동·이영호(1977)와 서구 및 일본(Pleck, 2000; 宮崎祐子, 1992)의 연구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가정행사(family rituals, events)에 포함시키고 있다.

2. 가정행사의 의미

가정행사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질서의 유지,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주고 가정측면에서는 가족관계의 강화, 세대간 연결, 가족발달을 돕는다.

의례(가정행사)는 기존 사회의 가치 확인과 사회질서의 유지 기능을 한다(박혜인·신기영, 2001; Cheal, 1988). 우리 사회는 급격한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친족의례가 토대가 되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여(박혜인·조은숙, 2001)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정행사는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강화시키게 된다(김계동·이영호, 1998).

한편, 가정행사는 가족관계를 강화시키고 (Black, 2002; Fiese

& Kline, 2002), 세대를 연결하고, 가족을 발달시킨다(Cheal, 1988; Imber-Black, 2002; Fiese & Kline, 2002; Pleck, 2000; Wolin & Bennett, 1984). Dickstein(2002), Meske et al.(1994)은 가정행사는 가족이 함께 하므로 가족관계가 강화되고 가족의 안정성과 가족의 접촉이 지속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행사는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켜 주고 전환의 위기 상황에 있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재조정해 주기도 한다(박혜인·조은숙, 2001). Wolin & Bennett(1984)은 가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공유감과 소속감을 주므로 가정행사가 중요하다고 한다. 가정행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킨다. Cheal(1988), Imber-Black(2002), Meske et al.(1994)은 가정행사는 세대를 연결시키고 가족의 연속성과 가족의 능력을 장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의 연속성을 주며, 나이는 기성세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행사는 가족을 발달시키는데(Dickstein, 2002), 특히, 자녀는 행사를 통하여 가정생활문화의 방식을 전수받기 때문에 자녀를 사회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여러 사람이 모임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되므로 자녀에게 교육적이다. 그러므로 가정행사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방법이므로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를 찾고자 한다(Pleck, 2000).

반면, 가정행사에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 외에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는데 가정행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부담 문제가 있다. 먼저 가정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가사노동이 요구되며(Meske et al, 1994),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의 문제(서봉자, 1983, 이길표, 1990 재인용), 행사 등 모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간의 갈등문제(Leach & Braithwait, 1996)도 생겨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정행사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소속감과 정체성을 주며, 가족원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서로 다른 세대를 연결시키며, 자녀를 사회화시키고 교육시키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 비용, 가족 간 갈등 등의 역기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정행사의 사회화

전통사회에서 가정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던 가정행사는 산업 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정행사의 준비는 가사노동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편중된 것이 현실이며 여성의 역할 없이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여성은 취업으로 가정 외 생산활동과 가정 내 가사노동의 이중 역할의 부담으로 그 동안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이루어지던 가정행사는 제 3자의 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인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비스 산업이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을 인계받을 때 일어난다(Pleck, 2000:9, 17, 243).

가정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산업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대체되거나 경감되어지는 현상을 가사노동의 사회화 혹은 산업화라 한다(이기영, 1987). 가사노동의 사회화에는 재화에 의한 대체와 서비스에 의한 대체가 있는데(이기영, 1981:220), 최근에 와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서비스에 의한 대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문숙재·정지영, 1991), 아울러 가정행사의 사회화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행사의 사회화 효시는 혼례행사로 서울에 천주교회가 설립되어 혼배성사가 등장하고, 감리교회가 건립되면서 예배당 혼례가 시작되어 서구화 영향을 받은 혼례로 변화되면서부터이다(김시덕, 1995:429, 박혜인·조은숙, 2001, 재인용). 즉, 이때부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행사가 서구화되어 외부기관인 종교시설에서 행해져 행사의 서비스 대체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가정행사는 산업자본주의의 영향을 급속하게 받으면서 더욱 사회화되어 대행기관과 업체가 등장하였고, 또한 종교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가정행사의 상품화와 상업주의화가 가속되었다(박혜인·조은숙, 2001). 가정행사의 대표적인 외부기관은 혼례와 상례를 대행하는 예식장과 장의사로 이러한 종류의 행사는 가정에서 대행업자로 상당히 이전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2). 현재는 돌잔치와 환갑잔치 및 결혼기념일 등의 행사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등 가정행사의 사회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김계동·이영호, 1997; 조선일보, 2000).

가정행사의 사회화가 비교적 일찍 시작된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취업여성 증가로 여성의 이중역할에 부담을 느낀 여성은 가정행사에 관련된 노동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 방안으로 가정행사를 외부 서서비스로 대체시키거나 남편, 자녀, 손님 등 가족원이나 행사 참여자에게 행사의 노동을 분담시키는 방안으로 행사와 관련된 가사노동을 감소시켰다. 그 한 예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부활절 행사 등이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등 20세기 후반에 가정행사는 가정을 벗어나 외부시설에서 지내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Gibson, 1999; Leonardo, 1987; Pleck, 2000:243-245). 이러한 서구의 경향은 우리의 생활이 점차 서구화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가정행사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정행사의 사회화시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가정행사 사회화 시 장점은 가족관계 강화와 가사노동 및 시간 감소이다. 가정행사를 위해 구매한 상품과 서서비스는 행사에 사용되어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촉매제로 사용되므로(Pleck, 2000:17)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강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예로 가족의 행사를 위한 외식을 통하여 가족의 단란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이기춘 외 5인, 1989) 가족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화를 통한 가사노동 감소 및 시간의 절감 효과가 있다.

반면 가정행사 사회화 시 단점은 가정의 기능상실 및 소멸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다. 이길표(1989)는 가정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삶의 활동이 점차 사회화 되는 현상이 현저하여 가

정의 기능 상실과 실질적인 소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제사를 음식점과 식당에서 하는 사회화 비율이 다소 보이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계동·이영호(1997)도 생일을 외부 시설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정성이 없는 형식적 잔치로 생각하여 집에서 한다고 하여 사회화의 단점인 가정기능의 상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가정행사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드는 경제적 부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문숙재·정지영, 1991).

4. 가정행사 사회화와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정행사의 사회화와 관련성을 갖는 주요한 변인은 연령, 학력, 가정의 소득/계층, 종교이다.

연령은 가정행사의 사회화와 관련되는데 기성세대에 비하여 젊은세대의 사회화가 더 높다. 생일 행사에서 외식은 30, 40대에서 하는 비율이 높고 60대에서는 낮다(박혜인·조은숙, 2001)고 하여 연령에 따라 사회화에 차이가 난다. 또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가정행사 의식에 차이가 보이는데 제례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대적이며(이정우·김명나, 1990),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고(임옥재, 1981), 학력이 낮을수록 제사 행례에 있어 전통의식을 나타낸다(이길표, 1999). 계층과 소득수준에 따라 가정행사 사회화에 차이가 있다. 계층이 높은 집단이 행사의 사회화를 주도하는데(박혜인·조은숙, 2001)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류계층은 가정행사를 다른 계층과의 구별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Pleck, 2000:239). 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말연시 가족모임을 외부에서 하는 비율이 높다(김계동·이영호, 1997). 한편, 고소득집단은 행사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므로(박혜인·신기영, 2001) 계층과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행사의 사회화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정행사의 사회화와 종교를 관련시킨 연구는 거의 없으나 가정행사 의식과 종교와의 관련성에서 보면 서구종교를 가진 집단이 가정행사 변화에 개방적이고, 종교가 없는 집단은 미온적, 불교집단은 전통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에 따라 시행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증가가 오늘날 가정행사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박혜인·신기영, 2001)로 미루어 볼 때 종교와 가정행사의 사회화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가정행사 시행의식

가정행사 의식의 연구를 보면 세대/연령, 성별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연구가 있다. 가정행사 의식은 주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이길표, 1989), 허성미·한재숙(1993)은 모녀세

대간 세시풍속에 대한 연구에서 세시풍속의식은 여고등학생보다 그 어머니가 높아 세대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계동·이영호(1997)는 주부의 제사 시행의식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불교나 천주교 가정이 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박혜인·조은숙(2001), 박혜인·신기영(2001)의 도시와 농촌지역의 가정행사 연구에서는 가정행사의식은 성별차이 없이 남녀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으나 연령, 소득, 종교에 따라 의식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선행연구(박혜인·조은숙, 2001; 이길표, 1989; 이정우·김명나, 1990; Cheal, 1988; 宮崎祐子, 1992)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부부 각자의 친척과의 교류정도, 가정행사 시행(전통행사, 탄생행사, 현대가정행사의 20가지)의 사회화에 대한 문항, 가정행사 시행의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행사의 분류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선행 연구의 분류를 종합하여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행사를 포함한 오늘날 사회변화로 추가된 행사까지 대상으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분석된 가정행사는 전통행사, 탄생행사, 현대가정행사이다. 전통행사에는 설(신정, 구정), 대보름, 추석, 석가탄신일, 제사의 6가지, 탄생행사에는 백일, 돌, 환갑·고희, 부·모, 부·부, 자녀 생일의 8가지를, 현대가정행사에는 입학, 졸업, 취직, 집들이,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의 6가지로 구분하여 총 20가지의 가정행사를 조사하였다.

가정행사 사회화는 서비스에 의한 대체에 국한하여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의 파악은 가정행사를 시행할 경우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쓰도록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행사 시행 의식 문항은 시행실태의 질문 문항과 동일하며 어머니-딸 용의 별도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행사에 대한 의식은 각 가정행사별로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꼭 지내고 싶다'에 4점, '될 수 있으면 지내고 싶다'에 3점, '지내도 되고 지내지 않아도 좋다'에 2점, '지내고 싶지 않다'에 1점을 주어서 점수가 4점에 가까울수록 행사를 하려는 의식이 높고, 1점에 가까울수록 그 의식이 낮음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조사대상은 여대생 자녀 가정의 가정행사를 조사하기 위해 생활이 비교적 안정기에 있는 자녀 성년기 가정의 주부와 여대

1)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소비지출 중 외식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서울지역 성인남녀 중 약 30%는 외식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소비자 보호원, 2000).

생 딸을 대상으로 하였다.²⁾ 가족생활주기 상 중년 가족은 행사에 깊이 관여하며(Wolin & Bennett, 1984), 대학생 자녀의 부모는 가정행사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Fiese, 1992; Meredith, Abott, Lamanna & Sanders, 1989) 때문에 가정행사 파악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여대생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유의적 표집방법에 의해 경남 진주 소재 K대학교, J대학교, B대학교 가정대학에 재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딸은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2년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여대생에게 배부하여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행사 시행의 사회화 문항은 그 어머니가 작성하고, 가정행사 시행의식 문항은 어머니와 딸이 독립적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총 220부를 배부하여 169부(77.3%)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교차분석, t-test 등을 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정행사의 사회화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내었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화는 교차 분석을 하였으며, 어머니와 딸 집단 간의 시행의식 차이는 paired t-test를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정의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확대가족은 9.5%이며, 가족 수는 3-4명이 59.2%, 5명 이상이 40.8%로 평균 4.4명이었다. 조사 대상 남편과 주부의 평균 연령은 각각 51.8세와 48.4세이었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37.3%, 중졸이 33.1%, 대졸 이상이 29.6%이었고,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 44.4%, 중졸이 42.6%, 대졸 이상이 13%로 나타나 다소 고학력 가정이었다.³⁾ 한편, 남편의 직업은 전문·사무직이 37.5%, 판매·서비스직 23.1%, 기타와 무직이 17.2% 이었다. 가정소득은 월 평균 2,811,243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2,815,168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⁴⁾ 가정의 종교는 불교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독교 17.8%, 무교 17.2%,

그 외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두 종교를 가진 가정이 약 10% 정도 있었다. 이를 경남지역의 종교 인구 비율과 비교하면 불교가정의 비율은 유사하나 무교가정의 비율은 낮은 반면 기독교 가정의 비율은 높았다.⁵⁾ 친척과의 교류빈도는 남편의 경우는 남편친척과의 교류는 매월 1회 이상이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개월에 1회 이상이 26.1%, 매년 1, 2회 교류가 19.4% 이었다. 주부는 주부친척과 매월 1회 이상 교류가 45%, 매년 1, 2회 교류가 23.7%, 3개월에 1회 이상 교류가 20.7%이었는데 남편과 주부 모두 약 65%가 3개월에 1회 이상 자신의 친척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주택유형은 공동주택이 55%, 단독주택이 44.4%로 진주시의 분포와 유사하였고, 거주면적은 30평 이하가 43.8%, 31-40평형이 36.7%, 41평 이상이 19.5%의 순으로 다소 거주 면적이 넓었다.

종합하면 조사대상 가정은 부부와 2~3인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50대 초반의 가장은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등의 직업에 종사하며, 다소 높은 학력을 가졌고, 종교는 불교가 많아 불교비율이 높은 경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주택은 평균보다 넓은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부부는 각자의 친척과 3개월에 1회 이상 교류하는 가정이 주류를 이룬다.

2. 가정행사의 사회화 경향

가정행사의 사회화 경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대가정행사의 사회화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탄생행사의 순이며 전통행사는 거의 사회화되지 않아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회화 정도가 달랐다. 이러한 행사를 하는 외부시설은 한식당, 양식당, 뷔페, 호텔, 여행지, 패스트푸드점, 카페, 호프집 등으로 나타났다<그림1>.

1) 전통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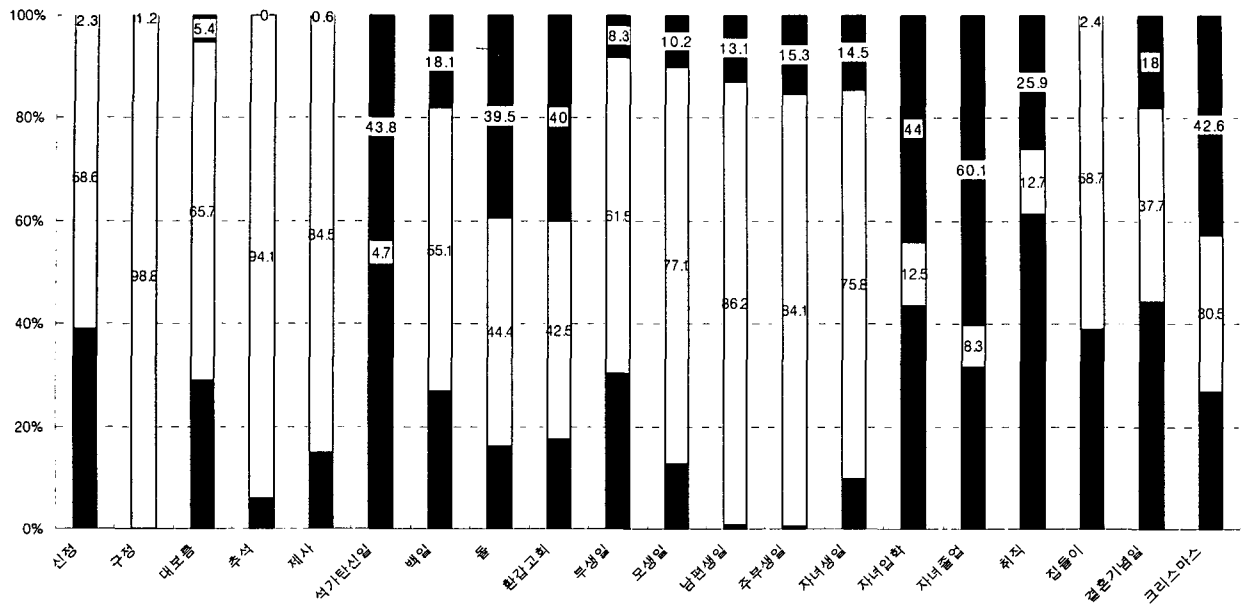
석가탄신일을 제외한 전통행사는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사회화되지 않았다. 석가탄신일만 종교기관인 절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43.8%로 매우 높는데 이는 불교를 가진 가정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외는 미미한 비율이나 대보름, 신정, 구정, 제사를 가정이 아닌 음식점, 호텔, 여행지 등에서 하는 경우도 나타났는데<그림2> 제사는 종교기관에 의한 대행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연구를(박혜인·조은숙, 2001) 감안하면 앞으로 이러한 행사의 사회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근래 신문기사에서도 지적되어 신정에는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고(조선일보, 2001. 12. 31), 명절에 밥을 사먹는 사람이 증가하여 패밀리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 업체의 매출이 급증하여(국민일보, 2002. 2. 15) 사회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전통행사의 경우 대체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

2) 가족모임과 친족유대에서 보다 책임 비중이 높은 사람은 여성으로 특히 40, 50대의 비중이 크므로(Leach & Braithwaite, 1996) 조사 대상인 여대생과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며 의례 행사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 1995년의 25세 이상 국민의 학력 구성비율 보면 남성의 경우 중졸 14.2%, 고졸 41.4%, 대졸이상 26.6%이었으며 여성은 중졸 17.1%, 고졸 34.8%, 대졸이상 13.1%이었다(통계청, 2000, p.123).

4) 도시 근로자 가구(가구주 연령 50-54세)의 2001년 4/4분기의 경상소득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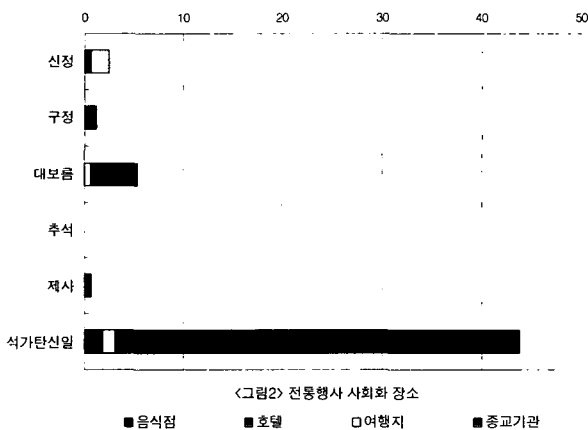
5) 경남지역의 인구 중 불교는 45.2%, 무교 41.5%, 기독교 8.1%, 천주교 3.4%이다(통계청, 1999).



〈그림 1〉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회화 경향이 감지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의 연령이 약 50대로 비교적 전통적인 가치관 교육을 받은 세대이고, 가정행사에 보다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는 불교가정의 비율이 높아(박혜인·신기영, 2001)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풀이된다. 그런데 이처럼 전통행사가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를 준비하는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부산일보, 2002. 9. 16; 조선일보, 2001. 9. 26)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가족원이 모두 만족하는 행사 시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사회화 비율은 약 40% 대로 가장 높고 이어서 백일(18.1%)의 순으로 백일은 상대적으로 낮다. 가족원의 생일은 약 10% 내외로 사회화되고 있는데 부부와 자녀의 경우가 부모생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환갑·고회와 돌의 사회화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 가정에서 돌은 전통적으로 탄생 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날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환갑·고회는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기에 그 의미가 매우 깊고 중요시되던 행사로 평균수명이 연장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중이 높은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이들 행사의 사회화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회화 비용부담이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행사 준비시간의 부족과 가사부담 문제, 다수의 손님접대를 위한 공간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 전통행사 사회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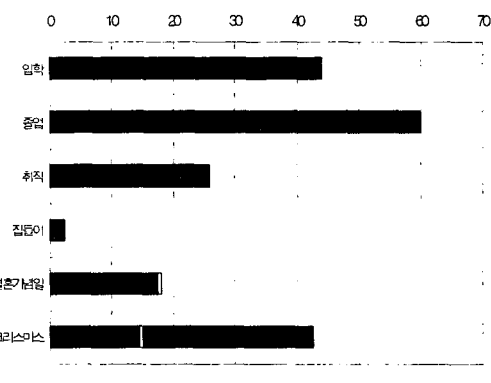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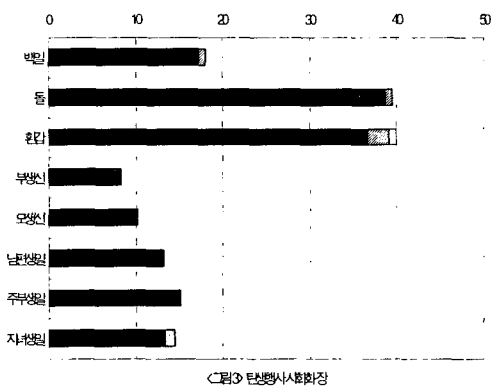
행사가 외부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장소를 보면〈그림3〉 돌과 환갑·고회는 뷔페식당을 중심으로 한 음식점이(각각 38.7%, 36.7%) 가장 많았으며 일부 호텔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전국 뷔페식당은 토요일 저녁이면 방방마다 돌잔치가 벌어져 '돌잔치 공장'을 방불케 한다는(조선일보, 2000. 2. 20)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되어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일의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부모 생일은 한식당에서 부부는 한식당과 양식당, 자녀는 양식당,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지에서 이루어져 세대별 행사 장소가 다르다. 자녀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서구적인 장소를 선호하고 있다.

2) 탄생행사

탄생행사는 비교적 사회화율이 높았는데 환갑·고회와 돌의

3) 현대가정행사

현대 가정행사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행사에서 사회화율이 높아 자녀의 졸업이 60.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입학(44%)과



크리스마스(42.6%), 취직(25.9%), 결혼기념일(18%)의 순이며 집들이는 대체로 가정에서 이루어져 사회화되지 않은 행사이다. 이 경우 집들이는 주택이 중심이 되는 행사이므로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풀이된다. 자녀 졸업행사는 하는 경우 거의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은 낮아 사회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가 외부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장소를 보면〈그림 4〉 졸업과 입학은 음식점에서 하는 경우가 높으나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루어져 자녀 중심 행사의 장소 취향이 보인다. 취직과 결혼기념일의 경우는 음식점에서 행해지는 비율이 높다. 집들이를 제외한 현대가정행사는 대체로 사회화 경향이 보이며 행사 장소는 음식점이다. 한편, 크리스마스는 종교기관(15.6%), 음식점(14.4%), 패스트푸드점 등(12.6%)으로 그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종교적 의미를 가진 행사로 시행되는 면도 보이나 서구적 행사를 즐기거나 하는 면도 있다고 풀이된다.

한편, 서구적 행사인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비율이 다른 행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에 대하여 Schmidt(1995)는 미국의 상업주의가 서양행사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출시켜 국제화시켰다고 본다. 또 이러한 상업주의는 행사 문화를 단일적이고 개성 없게 만들어 민족전통, 지역관습, 종교적 측면이 강조되기 보다는 서구축제를 보편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서구적 행사가 보편화되

는 시점에서 행사의 시행 의의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보아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가 가장 높은 행사는 졸업(60%대)이며 이어서 입학→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환갑·교회→돌은 40%대의 사회화율을 보여 이들 행사는 사회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판단된다. 또 20-30%대는 취직이며, 사회화를 10%대는 결혼기념일, 백일, 가족원의 생일이었다. 한편, 신경, 구정, 추석, 대보름, 제사 등 대부분의 전통행사는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져 사회화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행사를 시행하는 장소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음식점에서 이루어지거나 자녀 중심의 행사가 되는 경우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점, 호프집, 카페 등에서도 이루어진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각 행사의 사회화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 하였다. 변인 중 가정의 소득은 선행연구에서 가정행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소득을 통제하고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가정의 종교에 따라 교차분석 한 결과 일부 행사의 사회화에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

1) 주부 연령

소득을 통제하고 가정행사의 사회화와 주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백일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다. 백일은 가정의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주부연령 45세 이하인 경우 사회화 비율이 그 이상의 연령에서 보다 더 높았다 ($p<.01$). 그러나 가정의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주부의 연령과 백일 행사의 사회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백일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젊은층에서 많이 하나 돌잔치와 달리 필수적인 행사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박혜인·신기영(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따라서 백일행사는 가정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주부의 연령에 좌우되지 않고 소득이 낮은 집단 중 주부의 연령이 낮은 경우 외부시설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주부 교육수준

소득을 통제하고 주부의 교육수준별로 사회화에 차이가 나는 가정행사는 환갑·교회이었다.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환갑·교회행사의 사회화 비율이 높았는데($p<.05$), 즉, 고졸이상의 집단은 중졸이하의 집단보다 외부시설에서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이 낮은 경우 학력이 높은 집단이 사회화를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이기춘 외 5인, 1989; 임혜경·임정빈, 1995)와도 일치하나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환갑·교회행사의 사회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의 종교

가정의 소득을 통제하고 가정의 종교에 따라 교차분석한 결과 돌잔치와 가족원의 생일에서 사회화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다. 돌잔치(p<.05), 남편생일(p<.001), 주부생일(p<.01), 자녀생일(p<.01)은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외부시설에서 더 많이 하는 반면 불교와 무교집단은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행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는 종교에 따라 이들 행사의 사회화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서구종교를 가진 집단이 행사 변화에 개방적, 서구적이라는 연구결과(박혜인·조은숙, 2001)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는데 특히, 가정의 소득이 높은 기독교 가정의 경우 탄생행사의 사회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가정의 종교 비율 증감은 장래의 가정행사의 사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가정행사 시행의식의 세대간 비교

1) 어머니와 여대생 딸 집단의 가정행사 시행의식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와 여대생 딸의 가정행사에 대한 시행의식의 영역별 평균을 보면<표1> 어머니 집단은 탄생행사(3.56점)를 가장 지내고 싶어 하며 이어서 전통행사이며, 현대가정행사를 지내려는 시행의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딸은 탄생행사를 가장 지내고 싶어 하며 이어서 현대가정행사이며 전통행사를 지내려는

<표1> 가정행사 의식 평균 및 표준편차

행사명	어머니			딸			
	평균	순위	SD	평균	순위	SD	
전통행사	신정	2.02	6	0.92	1.84	6	0.81
	구정	3.78	1	0.59	3.33	2	0.99
	대보름	2.86	4	1.01	2.32	4	0.99
	추석	3.73	2	0.67	3.42	1	0.99
	제사	3.37	3	1.00	2.77	3	1.20
	석가탄신일	2.41	5	1.24	2.05	5	1.11
	평균	3.03			2.62		
탄생행사	백일잔치	3.09	8	1.06	2.85	8	1.06
	돌잔치	3.45	6	0.92	3.26	6	0.96
	환갑교회	3.38	7	0.92	3.23	7	0.96
	부생신	3.62	5	0.72	3.42	5	0.87
	모생신	3.69	4	0.61	3.46	4	0.81
	남편생일	3.76	2	0.57	3.76	2	0.53
	주부생일	3.79	1	0.54	3.83	1	0.39
	자녀생일	3.72	3	0.52	3.73	3	0.54
평균	3.56			3.44			
현대가정행사	입학	2.85	4	0.96	2.79	5	1.08
	졸업	3.38	1	0.83	3.32	1	0.89
	자녀취직	2.96	2	0.99	2.97	4	1.04
	집들이	2.79	5	1.08	2.60	6	1.06
	결혼기념일	2.90	3	1.05	3.12	2	0.97
	크리스마스	2.32	6	1.12	3.12	2	1.04
	평균	2.87			2.99		

의식이 낮아 어머니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어머니 집단의 행사시행의식 점수는 현대가정행사를 제외하고는 딸 집단보다 높다.

어머니 집단이 꼭 지내고 싶어 하는 행사(4점 만점에 3.5점 이상)는 구정, 추석, 부부생일, 자녀생일이며, 딸 집단은 부부생일, 자녀생일로 두 집단 모두 부부와 자녀생일의 핵가족 단위의 행사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 지내고 싶은 행사(3점-3.5점)는 어머니 집단은 제사, 돌, 백일, 환갑·교회, 졸업이나 딸 집단은 구정, 추석, 돌, 환갑·교회, 부모생신, 졸업,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비교적 딸 집단이 지내고자 하는 행사의 종류가 많다. 이 중 백일이나 돌의 경우 어머니 집단은 이러한 행사를 행한 시점이 약 20여년 경과하여 행사에 대한 시각이 다소 변화된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딸 집단에 비하여 점수는 다소 높아 시행의식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각 영역별 세부 행사를 보면 전통행사의 점수는 두 집단 모두 구정→추석→제사→대보름→석가탄신일→신정의 순으로 구정과 추석을 중시하여 가장 지내고 싶어 하나 신정을 지내려는 의식은 낮다. 이는 설을 두 번 지내는 것은 큰 낭비이며 대부분이 구정을 쇠기를 바라는 여론조사의 결과(조선일보, 1998. 12. 1)와도 일치되어 앞으로 신정에 있어 설의 의미는 퇴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생행사의 점수는 두 집단 모두 주부생일→남편생일→자녀생일→모생일→부생일→돌→환갑 교회→백일의 순으로 가족원의 생일이 우선시되고 백일을 하려는 의식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현대가정행사는 어머니 집단은 졸업이 가장 중요시되고 이어 취직→결혼기념일→입학→집들이→크리스마스의 순이나 딸 집단은 졸업→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취직→입학→집들이의 순으로 다소 차이가 보이는데 딸 집단은 어머니 집단에 비하여 결혼기념일과 크리스마스의 순위가 높다. 전반적으로 행사를 시행하려는 순위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의식이 일치하나 전반적인 점수는 현대가정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는 어머니 집단이 높다.

2) 어머니와 여대생 딸 집단간의 행사 시행의식 차이

어머니와 딸 간의 행사 시행의식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는 <표2>에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시행의식의 세대간 차이가 보였는데 전통행사에서는 각 행사별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고, 탄생행사와 현대가정행사에서는 일부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 세대간 시행의식에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행사에서는 구정, 추석, 대보름, 제사, 석가탄신일에서 두드러진 차이를(p<.001), 신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인다. 즉, 어머니 집단은 전통행사 시행의식이 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서 지내고 싶어 한다. 이는 모녀세대간의 세시풍속 의식을 비교한 허성미·한재숙(199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여 시간의 경과에도 전통행사에 대한 세대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탄생행사에서는 부모생일, 환갑, 돌, 백일에서는 세대간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는데 이들 행사에 대해 어머니 집단은 딸 집단보다 지내려는 의식이 높다. 반면 부부와 자녀생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의 시행 의지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현대가정행사에서는 크리스마스(p<.001), 결혼기념일(p<.01)과 집들이(p<.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는데 어머니 집단은 집들이를 하려는 의식이 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에 반해 딸 집단은 크리스마스와 결혼기념일을 지내려는 의식이 더 높아 세대간 중시하는 의식에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졸업, 입학, 취직 행사에서는 두 집단간 시행의식의 차이가 보이지 않아 이를 시행하려는 의식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2> 가정행사 시행 의식 비교

	행사명	어머니	딸	t 값
전통행사	신정	2.02	1.86	2.172*
	구정	3.78	3.36	5.608***
	대보름	2.86	2.35	7.092***
	추석	3.73	3.46	3.791***
	제사	3.37	2.84	6.629***
	석가탄신일	2.41	2.03	5.454***
	평균	3.03	2.65	
탄생행사	백일잔치	3.10	2.84	3.673***
	돌잔치	3.45	3.27	3.268**
	환갑교회	3.38	3.22	3.478**
	부생신	3.62	3.43	3.219**
	모생신	3.69	3.47	3.917***
	남편생일	3.76	3.76	.000
	주부생일	3.79	3.84	- 1.260
자녀생일	3.72	3.73	- .173	
	평균	3.56	3.45	
현대가정행사	입학	2.85	2.79	.842
	졸업	3.38	3.33	.749
	자녀취직	2.98	2.98	.000
	집들이	2.79	2.64	2.362*
	결혼기념일	2.91	3.17	- 3.098**
	크리스마스	2.32	3.11	- 9.037***
	평균	2.87	3.00	

* p<.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이상의 결과에 나타난 어머니 집단과 대학생 딸 집단의 행사 시행의식의 세대차는 한 가정 내에서 행사 수행 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전통행사의식이 높은 어머니세대와 현대가정행사 의식이 높은 딸 집단이 서로의 행사에 대한 의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행사 시행 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사회변화로 가정행사가 변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가정행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주시 여대생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행사의 사회화 실태와 어머니와 딸 간의 가정행사 시행의식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시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 사회화 경향은 전반적으로 현대가정행사가 가장 높고, 이어서 탄생행사이며 전통행사는 석가탄신일을 제외하고는 사회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 중 전통행사는 가정에서 거의 이루어져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가사노동자의 부담이 예측된다. 가정행사는 가족간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가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에서 그 효용이 더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정에서 행해지는 가정행사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바탕으로 지원되어 주부의 부담이 과중된다. 따라서 주부를 포함한 가족원이 만족할 만한 가정행사의 시행을 위하여 한 사람에게 집중된 가사노동이 가족원 및 행사참여자에게 분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진주시 여대생 가정의 행사 중 졸업, 입학, 돌, 환갑·교회, 크리스마스의 사회화 비율은 높아 사회화 경향이 농후하다. 이들 행사의 사회화 장소는 한식당, 양식당, 뷔페, 호텔, 여행지, 패스트푸드점, 카페, 호프집 등으로 행사의 성격에 따라 행사장소가 다르다. 가정행사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개별가정의 독특한 생활문화가 전수될 수 있으나 사회변화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중되는 주부의 가사부담을 고려하면 가정의 태두리 안으로만 고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를 사회화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가정별 특성에 따라 행사를 선별하여 이용 가능한 사회화 시설에 대한 사전 계획과 점검이 요망된다.

셋째, 진주시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는 소득을 통제하면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가정의 종교에 따라 일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가정행사는 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가정은 주부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301만원이상의 가정은 가정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사회화가 높아 이러한 집단의 증감이 가정행사의 사회화를 좌우할 것이며 앞으로의 가정행사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소득, 연령, 교육수준, 종교에 따른 가정행사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진주시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 시행의식은 어머니집단과 딸 집단간에 전반적인 세대차이가 보이는데 어머니집단은 전통행사와 탄생행사에 대한 의식이 높고 딸 집단은 상대적으로 일부 현대가정행사에 대한 의식이 높아 딸 세대가 중년이 될 장래에는 우리 가정행사의 비중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즉, 딸 집단의 의식을 감안하면 전통행사는 감소될 수 있고 현대가정행사는 증가될 수 있는데 특히, 서구적인 행사의 증가로 우리의 고유한 가정행사문화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행사를 통한 자녀의 생활문화 전승 기능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변화되는 가정행사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다섯째, 가정행사가 변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가정행사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의 내용은 현대 가정에서 가정행사의 의의 및 필요성, 가정행사의 계획, 가족원 및 행사참여자의 가사분담 및 양성 평등 분담, 사회화 시장·단점, 이용 가능한 사회화시설 및 그 점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 가정행사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존속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여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행사의 조사대상으로 경남지역에 위치한 진주시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 특성 상 불교인구가 많고 기독교 인구는 적어 전국적인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전국 평균 불교 인구에 비하여 경남을 비롯한 부산, 울산 지역의 불교 인구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은 특성이 있어 가정행사에 있어 종교의 영향을 고려하면 후속연구에서는 종교비율을 안배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행사의 사회화 의식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 행사 시행에 책임을 가진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가정의 동반자인 남성의 의식은 파악되지 못하였다. 가정행사의 가사노동 부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가족원의 가사분담 및 사회화의 실질적인 방안을 위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망된다. 남성은 가사노동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며 또 이의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크므로(석보드라·이기영, 1999) 남성의 의식 연구를 통하여 가정행사의 교육방향 수립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본다.

- 접수일 : 2003년 07월 13일
- 심사일 : 2003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09월 22일

【참 고 문 헌】

- 김계동·이영호(1998).현대주거에서의 의례관 별 의례행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5), 83-92.
- 김영숙·심영미(1991).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1-207.
- 김의숙·이기영(2002). 가정생활과 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문숙재·채옥희(1986). 가사노동. 신평출판사.
- 문숙재·정지영(1991).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31-15.
- 문숙재·홍성희(1988).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153-169.
- 박혜인·신기영(2001).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35-154.
- 박혜인·조은숙(2001).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67-184.
- 석보드라·이기영(1999).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 저항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71-185.
- 이기영·김의숙(200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출판부.
- 이기춘·이은영·이기영·황인경·김민자·김영옥 (1989). 산업 사회의 소비자행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115-132.
- 이길표(1989).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와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42-164.
- 이연숙·박경은(2000). 가사노동의 모년간 세대전달. *대한가정학회지*, 18(2), 29-44.
- 이정우·김명나(1990).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 이정우·이은주(1992).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0(1), 179-198.
- 지식발전소(2002). *두산세계백과사전*.
- 통계청(1995, 2002). *한국통계연감*.
- 통계청(2003).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국민 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2000). 우리나라의 외식 소비실태와 문제점
- 허성미·한재숙(1993). 세시풍속에 대한 여성의 인식 및 가사작업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15-27.
- 경향신문(2003). 즐거운 설맞이 10계명-건강관리 수칙. 2003. 1. 28.
- 국민일보(2002). 외식업계 명절특수 만끽. 2002. 2. 15.
- 문화일보(2003). 꽃 안 팔리는 스승의 날. 2003. 5. 9.
- 조선일보(2000). 돌잔치 뷔페 신났다. 2000. 2. 20.
- 중앙일보(2003). Day 마케팅. 2003. 3. 13.
- 宮崎祐子(궁기우자)(1992). *日本と韓國の都市住宅における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行事の行われ方を中心に-*. 大阪市立大學 修士論文.
- Fiese, Barbara H. & Kline, Christine A.(1993). Development of the Family Ritual Questionnaire: Initial Reliability and Validation Stud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3), 290-299.
- Cheal, David(1988). The ritualization of family 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1(6), 632-643.
- Pleck, Elizabeth H.(2000). *Celebrating the family: ethnicity, consumer culture, and family ritua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Imber-Black, Evan(2002). Family rituals-from research to the consulting room and back again comment on the special se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445-446.
- Howe, George W.(2002). Integrating family routines and rituals with other family research paradig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437-440.
- Boassard, James H. & Boll, Eleantor S.(1950). *Ritual in family living*.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chmidt, Leigh Eric(1995). *Consumer rites: The buying and selling of American holid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orardo, Michaela Di(1987). The female worlds of cards and holidays: women, families, and the work of kinship, *Signs: The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2(3), 440-453
- Wolin, Steven J. & Bennett, Linda A.(1984). Family rituals. *Family Process* 23, 401-419.
- Dickstein, Susan(2002). Family routines and ritual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441-444
- Gibson, Richard(1999). "Company cafeterias create dinners to go,"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3, pp. B1, B4.